

투데이 칼럼

나뭇잎에 가린 교통안내표지판, 전주의 품격을 가린다

전주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를 넘어 세계인이 찾는 문화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전주한옥마을에는 사계절 내내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든다. 거리를 걷다보면 들려오는 외국어와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이제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다.

전주의 맛과 멋, 그리고 우리의 전통문화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은 시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일이다.

하지만 관광도시 전주의 이면에는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치고 있는 작은 불편들이 존재한다.

외지인들이 전주를 찾으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도로와 교통체계이다.

낯선 도시를 찾은 사람들에게 교통안내표지판은 길잡이자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안내자 역할을 한다. 그런데 최근 전주시 곳곳의 도로를 살펴보면 무성하게 자란 가로수 나뭇잎들에 가려 교통안내표지판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곳이 적지 않다.

여름을 향해 가는 계절의 푸르름은 도시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지만, 지나치게 자란 가지와 잎들은 때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이만호

본보 정치부장

한다. 교통 방향 안내 표지판이 나뭇잎에 가려 보이지 않거나, 속도 제한 및 주의 표지판이 가려진다면 초행길 운전자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순간적인 판단 착오가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외지인들에게 전주의 첫인상은 매우 중요하다. 어렵게 길을 찾다가 표지판이 보이지 않아 여러 번 같은 길을 돌거나 목적지를 찾지 못해 불편을 겪는다면 관광도시에 대한 좋은 기억도 반감될 수 있다.

반대로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관리된 도시에서는 사람들은 편안함과 배려를 느끼게 된다.

결국 도시의 경쟁력은 거창한 개발사업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방문객이 실제로 체감하

는 작은 배려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교통안내표지판 주변의 무성하게 자란 나뭇가지를 정비하는 일은 결코 거창한 사업이 아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매우 크다. 교통 표지판 하나가 잘 보이도록 만드는 일은 관광객 한 사람을 편안하게 안내하는 일이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또한 "전주는 참 세심한 도시"라는 좋은 인상을 남기는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는 행정기관만의 몫이 아니라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집 앞 도로나 골목길에서 표지판이 가려져 있다면 동 주민센터나 시청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생활 속 작은 불편을 외면하지 않는 시민의식이 꼭 필요하다. 도시의 품격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관광객 이전만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가장 기본적인 교통안내판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깨끗한 거리, 친절한 시민, 맛있는 음식만으로 관광도시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외지 방문객이 불편함 없이 길을 찾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까지 갖추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관광도시가 된다.

전주는 발전하기에 충분한 가능성을 가진 도시이다. 우리의 전통문화와 음식, 사람 냄새 나는 정서는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여기에 시민 모두가 세세하게 작은 부분 하나까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가꾸어 나가면 전주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명품도시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사소한 보이는 무성한 나뭇잎 하나가 도시의 이미지를 가릴 수도 있고, 반대로 작은 관심 하나가 전주의 품격을 더욱 빛나게 만들 수도 있다.

이제는 행정과 시민이 함께 손을 맞잡고, 외지인 누구나 편안하게 찾고 머물 수 있는 아름다운 전주를 만들어야 할 때다.

사설

'빛고 담다' 세번째 전시회

'2026년 빛고담다' 세 번째 전시회 '달빛에 취하다'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된 이번 전시회는 전북특별자치도청 1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렸다.

참여 작가는 오은식, 박한별, 채수환, 이지연, 이지훈, 김연우, 서아림 등 모두 7명이다. 작가와 작품 이름은 다음과 같다.

오은식 '달랑이리 - 빛고 담다', 이지연 '운슬의 그림자 - 오늘을 담다', 김연우 '청화 백자 모란 박쥐무늬 항아리 - 여누자기', 이지훈 'Mix and Max - 후니 창작 놀이터', 채수환 '달과 솟대 - 토수화 도예', 박한별 '달랑이리 - 한도예공방', 서아림 '해달의 숲 - 사계 불 여를 가을 겨울 - 상상이 딸리에 등이다.

이지훈 작가는 서로 다른 성질의 것을 목직에 어울리게 짜 맞추는 것처럼 서로 다른 여러 색을 혼합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품은 도자로 완성한 작품이다.

채수환 작가는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솟대의 이미지와 달의 형태를 제작했다. 흙의 물성을 이용한 트임 기법이다. 거친 달의 표면을 표현한 작품으로 조형성과 실용성을 강조하여 인테리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작품이다.

윤슬 작가는 찰나의 순간, 물결위를 부서지듯 유평하는 운슬의 잔상을 청화의 푸른 농담으로 표현했다. 백자의 여백 위에 스며든 깊은 푸른색은 화려한 빛 그 자체보다, 그 빛이 머물다 간 자리의 고요하고 묵직한 여운을 담고 있다.

오늘 예고된 삼성전자 노조 파업

삼성전자 노조가 21일 총파업을 강행하는 가운데, 앞서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직접 노사를 만났다. 노동부 장관이 노동자들의 현안을 높이 평가하고 권리를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다만 눈부신 성과에는 수많은 협력업체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있었음도 함께 언급하며 조속한 대화 성사를 당부했다.

사측과의 대화가 결렬되자, 2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정부가 사실상 적극적인 개입에 나섰다. 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가 있기까지 수많은 협력업체의 노력, 정부의 지원과 반도체 산업 특성상 막대한 전력 확보를 위한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삼성전자 노사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조속히 성사시켜주길 바란다"고 적극 당부하고 나선 것이다.

당장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과 삼성전자치부 노조위원장이 만난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노사 간 협상 재개를 독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적극 지원에 나섰다.

지난 3월 3일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진 삼성전자 임금협상 안전에 대해 사후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노사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 조정 중지 결정이 난 시간이라도 노사 양측이 모두 동의하면 임금협상은 다시 조정위원회로 넘어가 협상안을 모색할 수 있다. 노동부는 조단간 삼성전자 사측도 만나 협상 재개를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노조 측이 요구했던 연봉의 50%로 설정된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의 15% 지급요구를 고수하고 있어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자재언

농번기 음주운전, '한 잔 쬐미야' 생각 버려야

최근 농번기와 각종 행사를 맞아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은 반주나 마을모임, 회식 후 가까운 거리라는 이유로 운전대를 잡는 사례가 여전히 적지 않고 큰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 외곽지역이나 이면도로는 차량 통행량이 적다는 이유로 경각심이 느슨해져 음주운전에 취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단 한번의 잘못된 선택이 풀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면소재지 주요 교차로와 외곽지역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야불문 스팟단속(수시 장소 이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시간과 장소를 예측하기 어려운 단속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음주운전은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고 주민인편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면허취소는 0.08% 이상으로 강화되었으며,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면서 초범이라도 상당한 벌금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고, 재범이나 인명피해 발생시 실형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성숙한 교통문화가 반드시 정착되어야 한다. 이상우 장수경찰서 교통관리계 경감

골목길 모퉁이 주차는 "이제 그만"

골목길이나 주택가 마다 폐곡히 들 어선 차량들은 매우 익숙한 풍경 중에 하나입니다. 주차난에 시달리는 주택가의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사고를 유발하는 모퉁이 주차 차량은 보행자 안전에 큰 위협이 됩니다.

모퉁이 주차는 단순한 통행 불편을 넘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의 불씨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32조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를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거리이기 때문입니다.

모퉁이에 차가 서 있으면 운전자는 꺾어 들어오는 반대편 차량이나 보행

자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작은 어린이나 보행 보조기에 의존하는 어르신들은 차량 뒤면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실제로 골목길 사고의 상당수는 이러한 시각지대로 인해 발생하며 그 원인중 하나는 모퉁이를 가로막고 서있는 주차차 차량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편하자고 세운 그 짧은 거리가 누군가에게는 골목길을 지나는 거대한 장애이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주세요. 오늘부터는 주차 공간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모퉁이만큼은 비워두는 배려를 실천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당신이 비워준 그 5미터가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공간이 됩니다.

김민준 전북경찰청 교통순찰대 경사

사내·외기고 및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